

실로암 한인침례교회

Siloam Korean Baptist Church

October 26, 2025, 10:30 a.m.

오순절 이후 스무번째 주일 (Year C)

The Twentieth Sunday after Pentecost (Year C)



Immanuel Baptist Church

69 Saunders Road, Newport News, VA 23601

담임목사 장선욱 Senior Pastor Sean Chang, 757-867-8676

seanchang78@gmail.com

www.siloamkbc.org

모임 안내 Gatherings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Korean/English) 10:30 am
수요 성경 공부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8:00 pm via Zoom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예배 순서 WORSHIP ORDER

I 모이기 Gathering

교회 소식 Life of the Church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예배 기도 Invoca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C1004 항상 진실케 Change My Heart O God

C1007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Father in Heaven, How I Love You

H263 이 세상 험하고 Jesus Paid It All

신앙 고백 Affirmation of Fath다같이 All Together

삶을 되돌아보기 Time to Reflect다같이 All Together

평화의 나눔 Sharing Peace다같이 All Together

중보 기도 Intercessory Prayers다같이 All Toge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I 말씀 The Word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다같이 All Together

누가복음 Luke 18:9-14

설교 Serm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교만과 겸손 Pride and Humility

III 화답 Response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C1198 우리 함께 기도해 Together We Pray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V 파송 Sending

파송 및 축도 Sending Word and Benedic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교회 소식 THE LIFE OF THE CHURCH

- 수요 성경 공부 매주 수요일 8 시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 2025 년 10 월 19 일 신도사무총회 결정 사항
 - 회계연도는 1 월부터 12 월로 한다.
 - 정족수는 참석한 교인으로 한다.
 - 원로 목사 사례비는 내년 4 월까지는 기존의 사례비를 드리고 5 월부터는 없는 것으로 한다.

이번주의 질문:

기도 제목 THE PRAYER LIST

- 사도행전 2 장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 지역 봉사를 감당하는 교회
 -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 선교사들을 위하여
 - 조동천 (캄보디아)
 - 이낙원 (케냐) 우리가 지원하는 아이들입니다. Fabian Kamau Eunice Wanjiku Allysa Wambui Sharlin Akai
-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
- 주위에 아픈 분과 돌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 자녀들을 위하여
- 여행하는 분들을 위하여
- 권세자들을 위하여

THE FIRST LESSON 요엘 JOEL 2:23-32

23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24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5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팔중이가 먹은 햇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26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30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32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와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시편 PSALM 65

1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2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3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4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5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6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7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8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9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10 주께서 받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11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12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13 초장은 양 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THE SECOND LESSON 디모데 후서 2 TIMOTHY 4:6-8, 16-18

6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16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7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공부 초점: *달려갈 길을 마치다*

생명의 말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끝을 향해 갈수록, 이것이 단순히 한 젊은 그리스도인을 격려하기 위한 일반적인 서신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오히려 이것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순교의 죽음을 맞이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1. 바울에게서 이런 소식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2. 임종을 앞두고 한 말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더해진다고 생각하나요?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변함없는 신앙의 본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도와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받은 박해와 고난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받은 박해를 네가 보았다.” (디모데후서 3:10-11, 새번역) 바울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내할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 4:6, 개역개정) 그러나 이 말은 자기연민이나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포도주처럼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바울의 그리스도 안의 삶은 이러한 결말을 맞을 준비를 이미 시키고 있었습니다.

3.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는 완전하거나 흠 없는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7, 개역개정) 우리 또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있을까요?

4.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5.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좋은 시절에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쉬운 길을 택하라고 설득할 때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처럼 그는 규칙에 따라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충신했듯이, 하나님도 바울에게 신실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8, 개역개정)

믿음의 경주는 단 한 사람만이 금메달을 받는 경쟁이 아닙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모든 이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드십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4:18, 개역개정)

6.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일이 다 끝났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말씀

작별인사는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죽음을 앞둔 사람과의 이별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종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사람 곁을 지킬 때, 우리는 나누는 대화를 소중히 여기며 마지막 한마디 한마디를 붙잡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곁에 함께 있었던 그 침묵일 때도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그 사람이 완벽하거나 흠 없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삶이 굴곡과 변수가 많은 여정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그 예상치 못한 우회로와 재난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인생은 단지 좋은 시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7, 새번역) 뿐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강인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는 숨을 쉬는 일조차도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아직 우리 안에 숨이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숨, 또 한 걸음, 또 하루가 이어집니다.

7. 지난주에 당신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웠나요?

8.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당신이 겪은 도전과 기쁨은 무엇인가요?

설교자들은 종종 이 구절을 장례식 본문으로 선택합니다. 당신이 알고 지냈던, 믿음 안에서 생을 마친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언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9.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의 예를 나누어 보세요.

우리 삶에서 믿음 실천하기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살기

침례의 물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동참합니다. 우리는 물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성령으로 영원히 인치심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여정은 많은 장애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마치 산과 사막을 가로지르는 마라톤을 달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함정과 도전으로 가득한 여정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신자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해 줄 때 힘이 되며,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여정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10. 당신은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 전에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마지막 말씀

밤에 잘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세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끝까지 달렸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기도

우주의 창조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선한 싸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경주를 할 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내심을 주옵소서. 아멘

THE GOSPEL 누가복음 LUKE 18:9-14

9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